



광남일보



주간 제 805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음력 2월 16일)

전남광주통합시장 ‘3파전’... 시도민의 선택은

김영록-민형배-신정훈...오늘부터 5일까지 본경선 당일·시민 각 50% 반영...후보들 막판 표심잡기 총력 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2인 결선 투표...12~14일

6·3지방선거 D-6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가릴 본경선이 3일부터 5일까지 치러진다. 예비경선과 잇단 단일화를 거치며 김영록·민형배·신정훈 후보 3자 구도로 압축됨에 따라 당 공천권을 둘러싼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후보가 확정되지만, 3자 구도 특성상 결선 가능성도 적지 않아 5일 발표될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 민주당과 지역 정계에 따르면 3일부터 5일까지 치러지는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ARS를 병행해 실시된다. 첫날은 온라인 투표 중심으로 진행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강제 전화응답 방식의 ARS 투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참여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이틀간 이뤄진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표집 대상으로 삼고, 강제 전화응답을 통해 지지도를 조사한다. 전남·광주 지역은 행정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약 9만명 규모의 안심번호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3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정치 여론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큰 편이어서, 캠프마다 막판 표심 관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단일화 효과의 실제 파급력이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 동부권을 기반으로 한 주철현 후보와 단일화하며 광주 중심 지지세를 동부권으로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신정훈 후보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손을 맞잡으며 광주와 전남을 잇는 조직 결집에 공을 들였다. 김영록 후보는 전남지사 경력과 도정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이개호 의원 등 지역 원로와 중진 그룹의 지원을 끌어내며 외연을 넓혔다. 경선 막판 형성된 이 합종연횡이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응집력 있게 작동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역별 표심도 결과를 흔들 요인이다. 권리당원 규모만 놓고 보면 전남(22만명)이 광주(11만명)보다 훨씬 두둑하다. 그러나 광주와 인접 시·군을 포함한 권역별 결집, 동부권 표심 이동, 단일화 이후 지지층의 흡수 정도에 따라 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문제, 친명 경쟁, 후보 정체성 공방 같은 네거티브 이슈가 실제 표심에 어

는 정도 영향을 줄지도 끝까지 지켜볼 대목이다. 각 후보 캠프는 SNS와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지원금 20조원 활용법 등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층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본경선을 하루 앞둔 2일 세 후보는 공개 행보를 크게 넓히기보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조직 점검에 무게를 실었다. 김영록 후보는 기자회견과 여수 일정 등을 통해



꽃 모종 심기 체험 하는 어린이들 2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마을사랑채에서 열린 식목일 기념 모종심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마을사랑채와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행정색 다양한 꽃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사랑채'의 취지를 살려,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가꾸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날 심은 씨앗과 모종은 마을사랑채와 인근 공간에 옮겨 심거나 비치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 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원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부권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의원 신정훈·민형배 후보는 국회 본회의 참석과 지역 일정을 병행하며 투표 직전까지 표심 관리에 집중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물밑 접촉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본경선 결과는 과반 득표 여부에 따라 갈린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별도 절차 없이 최종 후보가 확정되며,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이 실시될 경우 본경선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고 결선 진출자만 발표된다. 단일화로 압축된 3파전의 끝이 곧장 본선 후보 확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승부를 미루게 될지, 민주당 통합시장 경선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서부에 부속병원 2개 설립”...전남의대 상생 제안 나왔다

김문수 의원, ‘순천향대 의대 사례’ 대안 제시 교육부·양 대학 합의하면 2028년 개교도 가능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 대학이 이런 방안에 동의하고 오는 5월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전남국립의대 개교가 오는 2028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일 “전남국립의대 부속병원을 서부권과 동부권 2곳에 각각 설립해, 의대 4·5·6학년생들이 전공 학부에 따라 실습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두 대학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부 두 곳에 설립될 부속병원은 각각 지자체가 건립을

지원하거나,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100명의 의대 정원을 두 곳에 50명씩 나눠 배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과과와 의학과도 한 곳에는 의대 1·2학년이 배우는 의과과를, 다른 한 곳에는 3학년이 배우는 의학과를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대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으로 김 의원은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1978년 개교한 순천향대 의과대학은 충남 아산 본교 캠퍼스(아산시 신

창면 순천향로 22)에 의과과를 운영하고, 충남 천안 캠퍼스(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서 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실습이 병행되는 임상교육은 서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4곳에 설립된 순천향대 부속병원에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기 앞서 광주 출생의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무안군’

국방부 선정...민·군 공항 통합 이전 첫 법적 절차 돌입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한 후 처음 이뤄진 법적 절차로, 사업 추진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

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전 남도와 무안군, 중앙부처 간 협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도·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 계속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이제는 [일자리] 특별시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 광주